

전남지역 수협 연체 관리 엉망

흑산도수협 연체율 55.2% 전국 최고... 금융사고도 상위권

흑산도수협의 연체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남지역 수협의 연체비율과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 비율이 타지역 조합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수협 중앙회 등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수산 정책자금의 연체비율은 중앙회 0.8%, 회원조합 14.3%로 전체 평균 9.3%에 달했다.

조합별 연체비율을 보면 흑산도수협이 55.2%(161억원)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수협 52.3%(930억원), 장흥군수협 44.7%(128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부실조합으로 평가돼 완도군수협은 계약이전을 추진중이고, 흑산도·장흥군수협은 2008년 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금일수협 36.7%(157억원), 해남군수협 35.2%(197억원), 진도군수협 28.2%(85억원), 소안수협 27.7%(72억원), 신안군수협 19.1%(57억원) 등 전남지역 대부분 회원조합

의 연체비율이 전국 회원조합 연체비율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완도군 수협은 부당대출금이 19억원으로 전체 부당대출의 16%를 차지해 전국 회원조합중 1위를 차지했다. 부당대출금에 대한 미회수금액도 15억7천2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건, 175억8천만원에 이르는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서도 전남지역 수협들이 상위권을 차지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중앙회 4건을 제외한 26건 가운데 부산시수협 3건에 이어 장흥군·해남군·강진군수협 등이 각 2건씩 해당돼 한번 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기준 의원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연체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횡령·유용사고 등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남아공 다이아몬드 초대전 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황해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층 특설매장에서 '남아공화국 다이아몬드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천800만원짜리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해 3.39캐럿 베리골드 등 다양한 반지·목걸이·원석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값 폭등 3.75g (1돈) 최고 19만원

금은방 '개점휴업' 금펀드 '문전성시'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K금은방은 물들 맞은 외손자에게 1돈(3.75g)짜리 금반지를 선물하려는 노부부 고객을 제외하고 오전 내내 공쳤다.

금은방 주인은 "30년 넘게 영업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금을 사려는 팔려는 사람도 없어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금 3.75g(1돈) 가격이 16만~19만원대를 넘나드는 등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은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금관련상품인 '골드펀드'에는 고객이 몰려 금시장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날뛰기 금값에 고객 발길 '뚝'=유가폭락과 미국의 경기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몰리고 있다. 국제금값이 온스(31.1035g)당 910달러를 넘나들자, 국내금값도 지난 주말 3.75g당 19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주 들어 16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금값이 오르면서 광주 시내 금은방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급감해 운영난을 호소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5~6년 전만 해도 회원수가 400명을 웃돌았

으나, 최근에는 100여명의 안팎으로 줄어든데다 이들 대다수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K금은방 대표는 "3~4년 전에 비해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며 "최근에는 3.75g당 2천500원대에 불과한 은제품이나 액세서리 제품을 팔아 겨우 버텨나가고 있다"고 푸념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M입점업체 관계자는 "돌반지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50% 가량 줄었고, 혼수용 예물수요는 거의 없는 편"이라며 "돌반지 선물값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현금선물을 선호하면서 돌반지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펀드에는 관심 커=이른바 '골드뱅크'는 올 초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기업은행의 금 적립계좌 상품인 '원 클래스 골드뱅크' 시세는 지난 6일 기준 3만4420.43원으로 지난 8월13일보다 6861.61원(24.9%) 상승했다. 신한은행 '골드리쉬' 역시 최근 14.3%의 1개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캐시인덱스골드재간접자'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무려 16.07%에 달하고, 'KB골드파생상품' 역시 월 수익률이 13%를 넘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광업·제조업체 크게 늘어

사업체 수 9% ↑ ... 출하액 13.2% ↑

2007년 기준 통계 조사

지난해 광주지역의 광업과 제조업 분야 사업체수·출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가 최근 조사한 제조업·광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 수는 2천262개로 2006년말 2천75개에 비해 187개(9%)가 늘었다.

월 평균 종사자수는 6만2천588명으로 2006년에 비해 2천41명(3.4%)이 늘었으며 출하액과 생산액은 각각 19조4천600억원과 19조5천300억원으로 2조2천800억원(13.2%), 1조4천800억원(8.2%) 증가했다.

분야별로 증가폭이 큰 사업체는 의

료·정밀·광학기기(25.7%, 18개), 인쇄 및 기록·복제업 (23%, 17개), 1차 금속 제조업 (16.7%, 9개) 등이었다. 출하 규모가 큰 업종은 지역의 대표적 업체인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분야가 6조8천억원(35.2%)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으며 삼성 광주공장 등 전자·전기장비 제조업이 4조3천억원(22%)으로 다음을 이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의 월평균 종사자 수는 289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산층 지갑도 닫혔다

불황 여파 광주 백화점 9월 매출 신장률 올 최저

장기불황에 마침내 중산층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불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중산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9월 매출 신장률이 울퉁 울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황의 한파가 서민에 이어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9월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월대비 -2%로 물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롯데광주점도 지난 4월 -5%에 이어 9월 신장률이 -4%에 그쳤다. 광주신세계의 월별 매출신장률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1월 9%, 2월

4%, 3월 7%, 4월 5%에서 5월에 11%로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6월에는 다시 8%, 7월 6%, 8월 10%로 기복을 보이다가 9월 -2%로 곤두박질쳐 울퉁 울퉁 최저였다.

롯데광주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6%, -1.5%, -0.9%, -5%, -0.3%, -2.2%, -3.3%, 4.0%, -4.0%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고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3·4분기에는 명품·잡화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위축의 여파로 9월 실적은 잡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품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닛산 '인피니티' 전시장

광주 쌍촌동에 개장

한국닛산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호남지역의 '인피니티' 공식 전시장인 '노블 모터스'를 개장했다. (사진)

'노블 모터스'는 지상 3층, 연면적 1천785㎡ 규모로,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에 대한 판매 및 정비 서비스를 담당한다.

판매 차종은 승용차인 'G37' 세단과 'G37' 쿠페, 'M35' 등과 SUV인 'EX35', 'FX35', 'FX50' 등 6개 모델이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비비 및 부품판매가 이뤄진다.

'인피니티'는 이번 광주전시장 개장을 통해 호남지역 점유율을 올해 1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량구입 후 10만km까지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



품 무상교환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노블모터스' 구정운 본부장은 "닛산 고급브랜드인 '인피니티'는 유럽과 미국차에 비해 탁월한 주행성과 연비를 갖추고 있으며, 부품공급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피니티'는 광주전시장 개장으로 ▲서울 강남 ▲서울 서초 ▲부산 ▲분당 등 전국 5곳에 공식 전시장을 갖추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은 가치는 높고, 손쉬운 관리가 가능한 베네딕스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 소개: 발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네딕스는 발의 각질 제거, 보습, 향균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발의 각질 제거를 위한 베네딕스 발관리 크림은 발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부드러운 발을 만들어줍니다.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 베네딕스 발관리 크림, 베네딕스 발관리 스프레이, 베네딕스 발관리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 구매처: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베네딕스 발관리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 푸른산 테크빌 >

푸른산 테크빌은 첨단 기술 산업 단지로서,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 테크빌 분양/임대 개시.